

유형에 따른 서울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지역사회 협력 현황

장명화, 조원섭, 윤난희, 광민선*,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센터

■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역사회협력은 보건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들이 사안과 여건에 따라 한정된 자원의 중복 소비를 막고 각자의 전문성을 상호보완하여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이다. 최근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협력의 유형과 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협력 연구의 기초 작업의 하나로, 서울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있어 지역사회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의 유형을 분류하여 협력 추진 및 연구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 방법

서울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지역사회 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5개구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중 건강증진사업계획을 대상으로 3인의 연구자가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협력유형과 개발단계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및 결론

서울시 25개구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협력사례는 총 614건이 발견되었고, 이는 협력의 내용에 따라 10개 유형(서비스 직접 제공, 외부장소 활용, 교육자료 제공, 매체활용 홍보, 위원회/간담회/협의체 운영, 외부 전문가 활용, 보건소 외부행사 참여, 대상자 의뢰, 연계실시 기타)으로 분류되었다. 협력 유형별 사례 수는 서비스 직접 제공이 203건(33.1%)로 가장 많았고, 연계실시 160건(26.1%), 외부장소 활용 47건(7.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협력은 강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간헐적으로 정보교류 등 단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계(Networking)’, 필요에 따라서 장소,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는 ‘협조’ 비교적 단기간동안 특별히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라도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며 공동 활동을 하는 ‘협동’, 독립된 조직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의사소통, 자원, 책임, 위험, 결과를 공유하며 함께 움직이는 ‘협력’이 있다. 앞서 발견된 협력사례를 협력 강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 협조:협동:협력의 비율은 대략 6:3:1로 협조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네트워크 유형의 지역사회 협력은 발견하지 못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해당하는 협력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추진·관리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협력 유형 중 상위 발달 유형인 ‘협력’은 조직 구성, 운영체계 마련 등 기반 작업을 비롯한 다단계 과정이 요구되는데, 보건소 위주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협력 단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협력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 체계, 예산 지원 등의 관련제도 보완이 요구된다.